음악이 흐르는 순간 '클래식 페스티벌'

문화공간이룸서 피아니스트 박상욱 ·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 첼리스트 박건우 참여 31일 개최

사단법인 더문화와 문화공간이룸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전주시가 후원하는 '클래식 페스티벌 2025'가 오는 31일 오후 5시, 문화공간이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고품격 클래식 음악 공연과 함께 전주 시민들에게 특별한 문화 체험을 선사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와 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내외 무대에서 찬사를 받아온 연주자들의 특별한 하모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전북 지역 음악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클래식 페스티벌 2025에는 피아니스트 박상욱,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첼리스트 박건우가 참여해, 깊이 있는 해석과 세련된 음악적 조화로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주 프로그램으로는 모차르트의 정교한 음악적 구조와 풍부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Fantasy in D Minor, K.397이 준비되어 있고, 이어서 드뷔시의 대표작으로 몽환적인 선율의 Clair de Lune, 깊은 감정과 서정성이 보이는 S. Rachmaninoff의 Trio elegiaque No. 1 in G Minor 등 클래식 음악사의 걸작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 연주자는 각각의 개성과 악기적 특성

'클래식 페스티벌 2025' 포스터

을 통해 곡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에 적힌 세 곡을 넘어, 연주자들의 독창적인 해석이 더해진 다양한 작품들이 공연의 새로운 차원을 선사할 전망이다.

이 작품들은 각 악기의 개성과 조화로운 앙상블을 통해 기존의 익숙한 선율에도 신선한 감각을 더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예술적 감동과 특별한 경험을 안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클래식 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할수 있는 기회로, 사단법인더문화 대표는 "클래식 페스티벌 2025는 전주 시민은 물론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적인 순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의 예술적 정취를 담아낼 이번 공연은 하루만 진행되는 특별한 무대로, 음악 애호가들은 물론 관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세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그려낼 음악적 조화는 단순한 감상을 넘어 깊은 공감과 여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말고, 음악이 전하는 감동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길 권한다.

티켓 예매는 네이버에서 '클래식 페스티벌 2025'를 검색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 사항은 전화(063-223-5323)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제57회 전북특별자치도 미술대전 개최

7개 부문 대상작 선정… 28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서 진행

'제57회 전북특별자치도 미술대전'이 오는 28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 전관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서예, 문인화, 민화 등 총 10개 분야에서 다양한 작품이 접수됐다. 이에 1,378여 점에 달하는 출품작이 몰려 작품 참여 열기를 보였다. 특히, 신진작가 발굴과 지역 작가 육성을 중심에 둔 운영 방향이 많은 젊은 예술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분야별로는 한국화 93점, 서양화 131점, 수채화 94점, 판화 12점, 조소 32점, 공예 32점, 디자인 7점, 서예 393점, 문인화 496점, 민화 88점이 출품돼 총 7개 부문에서 대상작이 선정됐다.

전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전시는 5월 19~22일까지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민화 등 시각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2차 전시는 5월 24~27일까지 서예, 문인화, 대상 수상작들이 전시된다.

시상식은 28일 오전 11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북미술협회 백승관 회장은 "이번 미술대전은 전북미술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이자, 앞으로 전북미술이 나가야 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신진작가들이 전북에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전시장을 찾아 전북미술의 다양성과 깊이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출품 공모 시작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가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달 간 출품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장르 단편영화제인 미쟝센단편영화제는 장르별 경쟁 섹션을 중심으로 한국 단편영화계의 흐름을 이끌어 왔다. 이번 21회 영화제는 기존 섹션명을 전면 개편해 영화제의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적 감각을 반영하고자 했다.

특히 섹션명 변경은 영화제를 이끄는 7인의 감독(엄태화, 윤가은, 이상근, 이옥섭, 장재현, 조성희, 한준희)의 깊은 논의 끝에 이뤄졌다.

7인 집행부는 "기존에는 20세기 해외영화 중 장르적으로 큰 영향을 준 작품명을 섹션명으로 사용해 왔다면, 이번에는 2000년대 초반의 한국 장르영화를 기반으로 섹션명을 개편했다"며 "이는 동시대 한국의 신진 창작자들에게 깊은 영감과 자극을 준 작품들을 기억하고, 그 연대와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고자 하는 의도"라고 전했다.

미쟝센단편영화제 출품 공모는 5개의 장르를 선택해 출품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품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작 완료된 단편영화로, 크레딧을 포함한 총 러닝타임이 30분 미만이어야 하며, 연출자는 1인 1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김영렬 · 신대철 시인, 제4회 부안향토문학상 수상자 선정

(사)한국문인협회 부안지부(지부장 김황곤 시인)는 제4회 부안향토문학상 수상자로 김영렬 시인과 신대철 시인을 선정했다.

부안향토문학상은 2022년부터 수여하고 있는 상으로 공모로 추천된 20여 명의 후보 중 최종 수상자 2명을 선정했다.

김영렬 시인

신대철 시인

수상자로 선정된 김영렬 시인은 2010년 '지구문학' 신인상(시 부문) 수상과 함께 등단해 부안문인협회 제9~10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안문화원장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 '그 산에 취하고 싶다' 시집을 비롯해 다수의 공저가 있고 부안문협 회원 시화전 개최 등 부안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또 신대철 시인은 2015년 '한국작가' 신인상(시 부문) 수상과 함께 등단해 부안문인협회 제11~12대 회장과 전라북도문학관 아카데미 '문학과 인생' 지도교수를 역임했고 저서로는 칼럼집 '거짓과 진실', '주님 이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시집 '아침이야기', '꽃님에게'가 있으며 공익작가상, 부안향토문학상 제정과 변산 시인의 길 조성 등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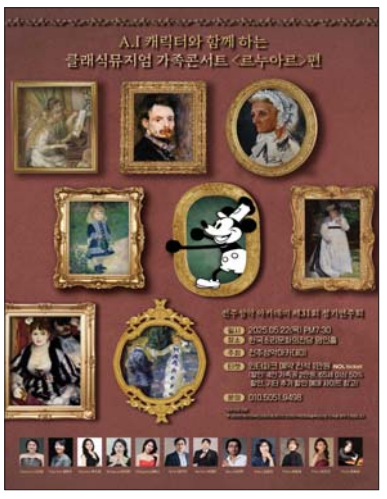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성악아카데미 정기연주회 개최

22일 A.I 캐릭터와 함께 하는 클래식뮤지엄 가족콘서트 '르누아르' 편

전주성악아카데미 제31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2일 저녁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A.I캐릭터와 함께 하는 클래식뮤지엄 가족콘서트 〈르누아르〉편은 소프라노 정현주, 신선영, 박수경 메조소프라노 변지현, 이하나 테너 이우진 바리톤 이대한 베이스 이대혁 피아니스트 김윤미, 이정재, 함동균, 허진선이 출연하며, 배우 김사랑, 윤세아, 김태은, 변효서 등이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온 가족이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기획됐다.



이번 공연은 피아니스트 조성진으로 더욱 유명해진 드뷔시 어린이의 세계 중 6번째 곡인 〈골리워그의 케이크워크〉를 최정상급 피아니스트인 함동균이 파일럿으로 변신해 클래식뮤지엄의 서곡으로 연주한다. 또한 다운증후군을 소재로 한 영화 제8요일의 ost로 미술공부를 하다 오페라 가수가 된 Louis Mariano가 불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어머니〉를 프랑스에서 콘서티스트로 다년간 활동한 메조소프라노 변지현이 부른다.

이어 국민가곡 〈눈〉으로 유명한 작곡가 김효근이 자신의 부인에게 청혼하기 위해 작곡한 피아노 연주곡에 성악가사를 붙여 만든 가곡 〈첫사랑〉을 바리톤 이대한이, 시인이자 교사였던 어효선이 6.25전쟁 중에 가족과 헤어져 부산으로 차출돼 볼 수 없는 아들을 보고픈 마음에 만든 국민동요 〈꽃밭에서〉를 소프라노 박수경과 배우 김사랑의 목소리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가곡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작곡가 이현주가 결혼하고 친정에 처음 가 아버지를 보며 느낀 마음을 하루만에 그대로 작곡한 한국가곡 〈아버지〉를 전주성악아카데미 여성 성악가들의 목소리로 감상할 수 있으며, 슈만이 클라라와 결혼하기 바로 전날, 결혼 선물로 작곡한 명곡 〈헌정〉을 테너 이우진이, 레미제라블, 웃는남자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낭만의 상징인 빅토르 위고의 〈만일 나의 시에 날개가 있다면〉, 푸치니의 명곡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세 자녀를 연이어 잃는 극심한 슬픔을 겪으며 언제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힘이 돼 줬던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작곡한 드보르작의 〈어머니 가르쳐 주신 노래〉까지 모든 곡들이 가족을 모티브로 구성됐다.

/장은성 기자